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타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보좌신부님 인사말씀

찬미 예수님!

저는 성 정 바오로 본당에 보좌신부로서 부임한 원종권 핀타노 신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본당에 도착하여 따스한 환대를 받으니 조금이나마 있던 얼떨떨했던 마음과 긴장되는 느낌도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두부와 버섯이 있습니다. 가리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취미로는 그림을 즐겨 그립니다. 특별히 배운 것은 아니고, 어렸을 적 수학이 싫어 교과서에 시작한 낙서가 어느새 즐거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노래를 찾곤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About you (The 1975)”, “Blue room (Chet Baker)”, “St, James Infirmary Blues (Cab Calloway)” “Nuvole Bianche / Stella del mattino (Ludovico Einaudi)”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첨가물일 뿐만 아니라, 염장을 통해 식료품을 오래 저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빛’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막론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은유인데, 신약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인 예수님 당대에는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성경에서는 ‘빛’이 주로 ‘하느님, 메시아,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토라(율법), 성전, 예루살렘’ 등을 가리키는 은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바로 너희 자신이 빛과 소금”이라는 뜻으로 ‘너희’를 강조하여 표현하십니다.

‘빛’을 모티브로 오늘 제1독서를 복음과 연결지어 읽어 보면,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곧,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바오로 사도가 ‘뛰어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복음 선포하셨듯이(제2독서), SNS 등을 통해 화려함을 자랑하기 바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뛰어난 능력이나 인간적인 드러남’으로써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애덕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故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금주의 교리 상식]

생미사

가톨릭 사전에서는 생미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 있는 이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파문 받은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신자들은 보통 가족·친지의 본명 축일이나 생일을 맞아 축하미사로, 또는 어떤 일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리기 위한 감사미사로, 기타 특별한 은혜를 청하기 위해 미사예물을 바쳐 생미사를 드린다.”

교회법에 의거하여, 신앙인으로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않은 이를 위해서는 미사를 봉헌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파문된 사람을 위해서는 미사 봉헌이 어렵지만, 비신자를 위해서는 미사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 지향을 받았을 경우, 감사기도 중에 이름을 넣는 것은 오로지 사목구 주임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반드시 이름을 넣어야 하는 전례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1. 재의 수요일 2차 헌금 안내

- 재의 수요일 미사 중에 중동부 유럽 교회 기금 (Aid to Church in Central Eastern Europe) 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중 제 5주간 모임 안내

- 2월 8일 (일)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복사단 회합 (오전 11시 30분)
- 2월 14일 (토) : 유아 세례 (오후 2시)

3. 연중 제 6주간 모임 안내

- 2월 15일 (일)
 - 하상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안나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꾸리아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2월 18일 (수)
 - 재의 수요일 미사 (오전 10시, 저녁 7시)
 - 사순 특강 (오전 11시, 저녁 8시)
- 2월 20일 (금) : 바오로 자매 모임 (저녁 8시)
- 2월 21일 (토) : 바오로 총회 (저녁 5시)

4. 2026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약정

- 매년 사순시기 동안 실천하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약정을 이번 주 모든 미사중에 실시합니다.
 - BLA 기금은 교구내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소중한 사용됩니다.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봉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도와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올해 본당 목표액 : \$200,000
 - BLA 납부 방법 안내
1. 온라인 접수 : 교구 웹사이트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 성당 명칭 입력시: St. Paul Chung 으로 입력
 2. QR 코드 이용 : 안내된 QR 코드를 스캔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 카드로 납부
 3. QR 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신자분들은 친교실에 마련된 BLA 안내 장소에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현금 및 수표 : 배부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5. 2026년 학생 견진반 신청

- 대상 : 첫영성체를 한 학생들과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첫영성체를 하지 못한 7학년 이상 학생들
- 1학기 - 3월 11일 (수)-6월 17일 (수), 저녁 7시
- 2학기 - 9월 2일 (수) - 9월 23일 (수), 저녁 7시
- 견진 미사 : 9월 29일 (화) 저녁 5시 30분
- 등록 기간 : 2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오후 2시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신월균 로사리아, 703-577-5085

6. 2월 유아 세례 안내

- 일시 : 2월 14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성지 가지 수거

- 지난해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2월 15일 까지 성지가지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8. 설 합동 위령 미사 봉헌

- 2월 17일(화)은 설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은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합동 위령 미사는 2월 15일 (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입니다.
- 미사 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기억하며 가족별로 절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리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9. 재의 수요일 미사와 사순 특강 안내

- 일시 : 2월 18일 (수)
- 미사 시간 : 오전 10시, 저녁 7시 미사
- 재의 수요일에 십자가의 길 기도는 저녁 미사 전에만 바치겠습니다.
- 사순 특강 :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저녁 8시 - 9시 30분
- 주제 : “미사 경본을 통한 미사 이해”
- 강사 : 정택진 베드로 신부님

10. 2026년 교구 CYO 하계 성소 캠프 등록 안내

- 2026년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 교구 소속 70개 본당 CYO 학생들을 위한 하계 성소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학생들이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가 신청 : 2월 28일 (토) 까지
- 참가자 확정 발표 : 4월 (정확한 날짜 미정)
- 참가비 : \$350 (성소 후원회에서 전액 후원)
- 참가 대상 : 9학년 - 12학년 재학생
- 캠프 장소 : Mount St. Mary's Seminary, Emmitsburg, MD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403-1185
- 남학생 Quo Vadis 신청 사이트 : <https://www.arlingtondiocese.org/quovadis>
- 여학생 FIAT 신청 사이트 : <https://www.arlingtondiocese.org/fiat>

11. 텃밭 가꾸기 강의

- 일시 : 2월 22일 (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친교실B-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농학 박사 원응식 요셉, 540-788-1127
- 울릉도 호박, 한국산 백일홍, 아삭이 고추 씨앗 무료 배포

12. 사순 시기 우리가 함께 할 일

- 주님 수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 삶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되도록 합시다. 사순 시기에는 주님의 수난에 함께 하기 위해 절제된 삶을 살며 결심과 노력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 단식과 금육제를 잘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봉헌하기 위한 무엇이든 도전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 사순 시기 동안에는 매일 미사 전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미사 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바치고, 다른 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시길 바랍니다.

13. 십자가의 길 봉사자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 주송과 복사하실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체, 개인으로 봉사하실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있는 일정표를 보시고 봉사하실 날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례 교육 안내

- 일정 : 3월 6일(금), 13일(금), 20일(금) 저녁 미사후
- 대상 : 본당 전례 봉사자는 의무 참석
그 외 전례에 관심있으신 분들도 참석 가능
- 신청 : 전례 봉사자는 전례 부장님께
그 외 교우들은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마감 : 2월 22일(일) 10시 미사 후까지

15. 성체 조배회 시작

- 본당 성체 조배회를 구성하여 성체 조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 1회, 셋째주 토요일에 미사, 성체 조배, 성체 강복을 하려고 합니다.
- 성체 조배 회원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시길 바랍니다.
- 성체 조배 회원분들을 위한 미사로 매월 3째 토요일에 봉헌됩니다.
- 성체조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시작일 : 3월 21일 (토)
- 신청 마감 : 3월 8일 (일) 10시 미사 후까지

16. The Light is On

- 사순 시기를 맞아 알링턴 교구 프로그램 “The Light is On”의 일환으로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 일시 : 수요일 저녁 6시 30분-8시
- 날짜: 2월 25일, 3월 4일, 11일, 18일, 25일
- 그리스도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7. “신앙의 신비여” 응답 변경 안내

- 2월18일 재의 수요일부터 “신앙의 신비여”에 대한 응답이 “2번양식”으로 변경됩니다.
- 혼동이 없도록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2월 01일 (연중 제 4주일)

봉헌금	-----	\$7,330.00
교무금	-----	\$9,950.00
교무금 (신용카드)	-----	\$2,940.00
감사 헌금	-----	\$300.00
2차 헌금	-----	\$2,701.00
온라인 봉헌	-----	\$840.00
합계	-----	\$24,061.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2월 13일(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2월 15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성경속의 악기 이야기
4. 재의 수요일의 유래와 의미

교중미사 예물봉헌

2/8 이번주	센터빌 3반
2/15 다음주	페어팩스 1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